



# 국제규모의 포장기자재전 SEOUL PACK '95

산업디자인포장개발원

국제규모의 포장기자재전인 SEOUL PACK '95가 4월 10일부터 5일간 한국 종합전시장(KOEX)별관에서 개최된다.

SEOUL PACK '95는 국내외 포장업체 상호간의 비교전시를 통한 포장기술 향상과 물류합리화를 촉진하고 새로운 포장소재와 기술개발을 유도하기 위해 산업디자인포장개발원(KIDP)과 대한무역진흥공사(KOTRA)가 공동으로 2년에 한번씩 서울에서 개최하는 행사이다. 이번 행사는 포장라인의 자동화 및 상품의 품위향상을 통하여 국제경쟁력을 증진시켜 국내 포장산업의 활성화에 기여하게 되며 특히 금년부터 쓰레기종량제 실시와 관련하여 포장 폐기물의 감량과 포장재질 대체 등 환경문제 해결이 시급한 현안으로 떠오른 시기에 개최되어 관련업체 뿐만 아니라 일반인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예상되고 있다.

SEOUL PACK '95에의 참가품목은 <포장재료와 용기> <포장기계 및 부품> <포장재료 가공기기> <물류 관련 기자재> <기타 관련기기> <포장 디자인> 등 6개 부문이다.

이번 전시회에서 과거와 다른 점을 찾는다면,

첫째로, 포장디자인 부문의 신설이다. 이는 환경문제를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포장디자인과 포장기술의 접목이 필수적이라는 인식에

서 비롯되었다.

둘째로, 환경친화적인 포장재료로서 각광받는 '필프몰드'를 생산하는 업체가 다수 참여하여 요즘 포장소재 찾기에 골몰하는 관련업체의 어려움을 해소할 기회가 마련되었다는 것이다.

이번 전시회에는 국내외 포장자재, 포장기계, 포장재료 가공기계업체 및 관련기자재 제조·무역업체와 관련서비스 업체 등이 참가하여 3월 말 현재 전세계 15개 국가에서 140업체가 참여, 최종적으로 360여 부스가 전시될 예정이다.

지난 10년간 개최된 SEOUL PACK '95의 현황을 살펴보면 [표 1]과 같다.

산업디자인포장개발원에서는 전시기간 중 별도코너에 포장상담실을 설치하고 전문인력을 배치, 상주시켜 포장자재 개발과 기술개발을 원하는 기업체의 상담에 응하고 KIDP의 기업지도사업에 참여할 업체를 발굴할 예정이다.

한편, SEOUL PACK 과 마찬가지로 2년에 한번씩 TOKYO PACK을 주관하는 기관인 JPI(일본포장기술협회)에서는 10년째 맞이한 SEOUL PACK이 세계대회 규모로 발전하여 홍보효과가 크다고 인식하고 이번 전시회에 처음으로 TOKYO PACK('96년 개최 예정) 홍보부스를 설치, 운영

(표1) 지난 10년간 개최된 SEOUL PACK 현황

구분	'85	'87	'89	'91	'93	'95
전시기간	6.11~16	4.7~12	4.27~5.1	4.23~27	4.9~13	4.10~14
전시면적(m <sup>2</sup> )	1,708	1,708	2,650	3,492	3,370	
참가업체수	92	89	118	133	118	140
참관객수	36,968	39,911	25,578	20,840	21,572	-
거래량(천\$)	6,196	13,400	58,530	146,860	63,600	-

하게 된다.

제품은 궁극적으로 포장을 통해서 상품으로서의 아이덴티티(IDENTITY)를 획득하고 있으며 이는 제품의 질적보호라는 단순한 차원을 떠나 상품성의 제고, 유통상의 효율성, 소비자의 욕구충족 등 여러가지 차원에서 필수불가결한 요소가 되고 있

다. 현재 국내외 산업에서 포장산업이 차지하는 비율은 GNP대비 약 2%로서 금액상으로는 대략 4천억~5천억 달러에 이르고 있으며 국내산업의 경우 GNP 대비 1.8%, 금액은 약 4조원에 달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최근 들어 환경오염과 관련하여 포장폐기물 감량에 대한 관심이 날로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포장

업계에서도 포장의 사회적인 측면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으며, 또한 환경친화적인 재료의 사용과 포장재의 회수시스템 개발로 회수에 의한 재자원화 조치를 정립하여 환경오염을 최소화하는 등 국제적인 환경장벽에 대응해야 할 것이다.

UR의 타결로 인해 가시화된 그린라운드가 주요 안건으로 부각되고 있는 오늘날, 국내외 포장관련 각종 신기술, 신제품을 집약시켜 국내 포장산업이 국제환경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적응력과 자생력을 제고시키는 것이 무엇보다 급선무이다.

(그림1) '95 서울 국제 포장 기자재전 배치도

